‘빈손 워크숍’…미래가 걱정되는 민주

대선 패배 책임자 없고 비전 제시도 없어

전대시기·지도부 경선 룰 싸고 입씨름만

정치권의 주목을 모았던 민주당의 1박2일 워크숍이 아무런 반성과 비전 제시 없이 끝났다. 오히려, 전당대회 시기와 지도부 경선 룰에 대한 계파 간의 이견만 확인된 자리였다는 혹평만 제기됐다.

충남 보령 한화 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큰 이슈는 총선 및 대선 패배의 책임론이었다.

대선 평가 토론회 기조 발제를 맡은 한상진 위원장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당을 장악했던 실세들도 (자기 고백을)해야 한다. 정직하게 ‘내 탓이오’라고 한 뒤, ‘당이 단결해서 함께 나가자’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큰 병에 걸렸다. 정상적 조직이 아니다.”라고 진단한 뒤 “큰 병이 걸렸는데 치료를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대철 상임고문은 “인적쇄신을 통해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모습이 보여야 당의혁신이 가능하다”며 “지난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의원직 사퇴 요구도 나왔다. 이동섭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은 “한명숙 전 대표는 총선에서 계파 공천을 했다가 총선에서 참패했다,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와 한명숙, 이해찬, 문성근 전 대표는 이날 워크숍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친노 진영으로 평가받는 최민희 의원은 “친노 책임론으로 각자가 져야하는 책임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김경협 의원은 “사죄보다는 현안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작 친노 그룹을 중심으로 한 주류 세력의 목소리는 전당대회 시기와 경선 룰 논의에서 터져나왔다. 자성과 성찰이라는 염불보다는 당권이라는 잿밥에 관심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비주류의 황주홍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및 대선 실패의 핵심은 모바일 투표제”라고 직격탄을 날렸으며, 서재관 지역위원장은 “투표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며 등가성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모바일 투표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주류의 양승조 의원은 “모바일 투표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십만 명의 참여를 막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며 정청래 의원은 “모바일 투표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폐지하는 것은 교각살우”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도 비주류 측에서는 3월말에, 주류 측은 5월에 치러야 한다며 맞섰다.

주류 측의 5월 전당대회 주장과 관련, 비주류 측에서는 친노 책임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 담겨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전대준비위원회는 이번 주 내에 전대 개최 시기를 결정, 이달 20일까지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워크숍을 마치고 ▲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 ▲의원 세비 30% 삭감 등의 7대 신조를 발표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7대 신조가 진정한 반성과 성찰보다는 보여주기 식의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냉소를 보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지난 1일 오후 충남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1박 2일 워크숍에서 한상진 대선 평가위원장의 기조발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모바일 투표 ‘뜨거운 감자’

친노 등 주류 “존속” 비주류 “폐지” 논란 속

차기전대 도입 싸고 양측 충돌 불가피할 듯

모바일 투표의 존폐 문제가 민주당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친노 그룹을 주축으로 하는 민주당 주류 그룹은 모바일 투표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비주류 그룹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모바일 투표제는 민주당 당원을 확보하지 못한 시민사회 진영과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투표자가 직접 투표소로 갈 필요가 없어 선거비용을 낮출 수 있는데다 선거인단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를 통해 당심과 민심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국민적 관심을 높여 바람몰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투표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심각하는 지적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혐오감과 무관심에 따라 모바일 투표가 자발적 참여보다는 동원적 측면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역위원장 등 조직적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친노 주류 진영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친노 주류 그룹이 적어도 5만~6만명에 이르는 모바일 투표 참여 그룹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여기에 비밀 투표의 원칙이 원천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도 결정적 문제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사후 확인이 가능하다.

과거 당내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모바일 투표 결과가 돌기도 했다.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 지역과 노년층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어 세대별, 지역별 등가성 원칙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와 관리상의 맹점도 지적된다.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무효표 논란 등으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 경선이 중단되는 파행을 빚기도 했다.

비주류 측에서는 이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즉각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류 측에서는 모바일 투표의 부작용과 단점을 보완해 국민적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바일 투표 도입 여부를 두고 주류와 비주류의 전면전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국회의원 19명 법안 발의 봤더니

1인당 13.7건…가결률은 8% 불과

발의 상위 5명…이낙연·주승용·배기운·김성곤·김동철

지난해 5월 30일 19대 국회 개원 이후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한 명당 13.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결률은 8.0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3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의원 19명이 대표 발의한 건수는 모두 261건이었다.

이는 18대 대표 발의건수 151건보다 72.84%(110건)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19대 때 폐기·부결·철회 처리된 것을 제외한 원안가결·대안반영·수정가결 등 실제 본회의를 통과해 처리된 비율은 8.04%(21건)에 불과했다. 발의 법안 10건 중 1건만이 제때 처리된 셈이다.

나머지 238건 중 235건은 계류 중이며, 3건은 폐기·철회됐다.

개인별 발의 건수로 보면, 이낙연 의원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승용 의원 27건 ▲배기운 의원 26건 ▲김성곤 의원 22건 ▲김동철 의원 21건 등의 순이었다.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법안 발의 평균건수는 13.7건이며, 전국 평균은 9.9건이다.

19대 국회는 모두 2967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중 541건이 통과됐다.

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소속의원 154명이 1368건, 민주통합당 127명이 1457건을 각각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의원 1명당 8.9건, 민주통합당 11.5건의 의안을 발의했다.

센터는 이 같은 활발한 입법활동에도 새누리당 심윤조·이운룡·장윤석, 민주통합당 부좌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5명은 한 건의 대표발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헌재소장 공백 사태 언제까지

‘이동흡 침묵’ 속 당정·인수위 “네탓” 공방만

민주 “버티기로 시간끌지 말고 자진 사퇴를”

지난달 21일 퇴임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동흡(62)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으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중단되면서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2주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표결에 부칠 경우 통과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관측돼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누리당은 서로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만이 유일한 돌파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지난 21~22일 청문회에서 집중 질타를 받은 이후 열흘 이상 굳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지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한 반면, 이 후보자 측에서는 그 이후에도 전혀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현재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물론 헌재 내부 인사들과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주변에서는 이 후보자의 침묵이 길어질 경우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여전히 공석인 헌재소장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다”며 “버티기를 할 모양인지 모르지만 숨어 지내고만 있다. 일종의 시간끌기로 보인다”며 자진사퇴를 재차 압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進甲’ 맞은 박 당선인

외부 일정 없이 인선 고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진갑(進甲)을 맞은 지난 2일과 3일 공식 일정 없이 인선 작업에 몰두했다.

1952년 2월2일 태어난 박 당선인은 2일 한국 나이로 62세, 진갑(進甲)을 맞았다. 평소 비공식 일정을 일절 공개하지 않는 박 당선인은 이날도 측근들에게조차 계획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일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삼성동 자택에서 박지만 EG 회장 부부와 조카 등 가족과 만나 담소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에 앞선 지난 1일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들은 케이크를 준비해 박 당선인의 생일을 미리 축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3일 오전 삼청동 안가에서 당 소속 서울 지역 의원들과 오찬을 하는 것을 제외하곤 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 같은 조용하게 생일을 맞은 박 당선인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가 각종 의혹 때문에 낙마한 만큼 향후 인선에서는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간이 촉박하고 정보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도움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보안에서 검증으로 방향을 전환한 데에는 '밀실 인사'의 허점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TFC (사) 한국맛음식연구원
Sthe1 요리학원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김치자격증반 · 대회반
각 선착순10명 모집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강사진
■푸드코디네이터 명인 1호 이성희 원장 (한국맛음식연구원 원장, 현, 조선이공대학 겸임 조교수)
■백석 문화 대학교 이진하 교수 (경기대학교 식공간 연출 석 · 박사)
김치 자격증반 · 대회반 강사진
■김치 명인 1호 이성희 원장 (한국맛음식연구원 원장, 현 조선이공대학 겸임 조교수)
■한국 음식 대가 구본길 부학장 (고려전문학교)
■한국 관광 대학 호텔조리과 김옥란 교수 (경기대학교 외식조리 석 · 박사)
■현) 신라호텔 한식과장 백영란 교수
Sthe1 요리학원 문의전화 062)385-0723 금호파출소 건너편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① 연수일정(2013년 제10기)
• 개강일시 : 2012. 3. 4(월) 기초주간 14:00 기초야간 19:0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3. 1. 21(월) ~ 2013. 2. 28(목)
• 수업기간 : 2012. 3. 4(월) ~ 2013. 6.17(금) (총 90시간)
• 수 강 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주간반: 30명 기초반 야간반: 30명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함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주간반 14:00~17:00
- 야간반 18:00~21:00
● 수료 후 특전
• 기초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① (사)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②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062)530-3873~3876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 : //sle.jne.go.kr

경매투자
▶취급:특수/NPL물건
▶방법:개인/공동투자 가능
▶보장:등기/근저당
▶투자:5천만원 이상
▶기간:6개월 정도
▶수익:년30% 이상 가능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경매비법 전수
▶회비:개인 1,100만원 공동 550만원
▶혜택:1인1물건 낙찰 보장 교육/임장비등 일체 평생 경매 상담 무료 사무실 사용 등등
(주)오천경매 H.010-4667-9300

1.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2층 38평
2. 현, 보1,000만원에 월 60만원 임대 중
3. 대출3,000만원 정도 가능
4. 사무실전용, 올수리, 주차편리
5. 감정가 14,700만원 급매가 6,700만원(일시불 조정가)
6. 주인직매 010-3605-5000

“급” 매매

1. 신안동 제일오피스텔 2층 49평
2. 현, 보1,000만원에 월 50만원 임대 중
3. 대출 3,000만원 안고 가능
4. 사무실 전용, 인테리어 최상, 창가
5. 급매 8,700만원
6. 주인직매 010-3605-5000